

“반목·갈등 해소... 문화·생물의약이 돈되는 ‘명품 화순’으로”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구충곤 화순군수

구충곤(55) 화순군수는 두번 도전 끝에 화순군의 수장이 됐다. 2010년 민주당 공천을 받고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4년 만에 다시 민주당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는 화순군의 오랜 불명예를 끊었다는 데 의미가 깊다.

화순군민들은 구 군수의 당선을 계기로 화순군이 구태정치에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구 군수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장 시급한 반목과 갈등 해소를 나서고 있다. 취임식에 앞서 직접 전직 군수들을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으로써 취임식장에 전·현직 군수가 나란히 참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했다.

구 군수의 좌우명은 ‘원칙(原則)을 지키며 정도(正道)를 걷자’다. 그는 “원칙을 지키며 바른 길을 걷다 보면 조금은 불편하고 손해도 보지만 결국은 군민들이 뜻을 알아봐 준다”면서 “좌우명을 군정 운영에서도 적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민선 6기 비전과 군정 운영방향은.

▲조선 단체장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라는 군민의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선 6기 화순 군정의 비전을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정했다. 이는 문화예술산업과 생물의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명품 화순을 만드는 것이다.

군정 운영방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명품 교육도시 건설 △의·생명 복합도시 건설과 우수기업 유치 △명품 복지화순 건설 △안락한 정주여건 조성 △문화가 돈이 되는 화순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 것이다.

-의·생명 복합도시와 연관된 의료관련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화순은 화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국립 암센터, 녹십자, 백신특구 등 최적의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남 유일의 생물 의료 관련 산업 집적화단지 특성을 살린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의·생명 복합도시 화순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백신지원 개발센터’를 화순으로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국가 백신지원 개발센터가 화순에 유치되면 의·생명 복합클러스터와 연동해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적극 협력해 화순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기 강소기업들의 농공단지 및 백신특구 내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등 졸업생들에게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특성화고, 의료 마이스터고를 유치할 계획이다. 화순은 전남대의대 이전이 예정돼 있는 등 특성화고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의료 특성화고는 바이오메디컬(생물의약) 클러스터 인재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주)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의 향후



구충곤 군수 프로필 ▲1959년 화순 출생 ▲조선대 대학원 공학박사 ▲전남리비협회 회장 ▲전남도의원(예결위원장) ▲전남도립대 총장

운영방안은.

▲먼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농업인 등 5000여 명이 출자해 설립돼 현재 자본이 잠식된 (주)화순농특산물 유통은 소액출자자 원금보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급선무다.

기본적으로 군이 주도하고 관유한 사업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관련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검토하고 분석해 제대로 된 해결방안

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유관기관 및 유통회사가 설치돼 있는 시·군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하는 방법과 군민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이 추가 출자해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소액주주 보상 및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들과 법적조치 해제 및 채무연기를 위해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자해 주신 소액주주분들이 군을 믿고 기다려 주시는 인내가 필요하다. 화순군이라는 공공기관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원금은 보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교 공동학군제는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타 지자체와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고교 공동 학군제는 광주 인접 시·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나주·담양·장성군 등 광주 인근 시·군과 협의해 공동 학군제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지난 5월 27일 광주 인근 5개 시·군이 광역 생활공동체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 화순은 원활한 교육환경 조성고 명품 교육도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교 공

예안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개발사업은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가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 원칙은 한마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100원 효도택시’는 이낙연 전남지사도 함께한 공약이자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발표한 6·4 지방선거 최고의 명품 공약이기도 하다.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 오지 마을 어르신들이 100원만 내면 콜택시처럼 이용해 집에 가지거나, 읍내 병원에 가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연간 20만원의 건강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 인근 시·군과 협의 ‘고교 공동학군제’ 부활 ‘100원 효도택시’ ‘건강장려금 20만원’ 꼭 실현

동학군제 부활을 건의했다.

지난 1993년 공동학군제 폐지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광주지역 고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면서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학군제가 시행되면 광주로 진학하기 위해 이사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오히려 광주시민이 화순으로 이사 오게 돼 인구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의 합의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수 인재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화순고, 능주고 등을 명문학교로 집중 육성하겠다.

-복지공약중 눈에 띄는 ‘100원 효도택시’와 ‘건강장려금 20만원 지급’은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포폴리즘 아닌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군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외람되게도 나는 도의원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남도의 살림살이를 직접 들여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경험을 쌓았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광주 시, 담양군 등 인근 지자체와 광역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관건이다.

▲최근 광주시의 국공부가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를 2017년까지 이전키로 했다. 무등산 정상 개방에 앞서 화순군민의 권익을 위해 입석대, 규봉암, 천왕봉 등 화순군의 자원이 포함된 무등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광주시에 화순군민의 재산권 등을 고려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09년 광주시의회가 화순고 담양 등 전남도민을 배제하고 무등산을 개발하려는 내용의 ‘무등산 조례안’을 마련했을 때 나는 즉각 폐기와 함께 광주시와 화순, 담양 등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무등산권 타 지자체와 협력해 ‘무등산권 자원보존과 활용을 위한 단체장 연합’ 기구 설립을 추진해 7만 군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다.

/광필수기자 bung@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사진=나명주기자 mina@



●의·생명 복합도시 건설 어떻게 국가 백신지원개발센터 유치 심혈 의료기기 강소기업도 적극 투자 유치 의료특성화고·마이스터고 건립 추진

●자본잠식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해법은 郡 주도사업 농민 피해 절대 용납 안돼 특별법 제정 보상·郡 추가출자 등 검토 소액주주들 주식 매입 경영정상화 모색

●무등산 국립공원 따른 주민 재산권 보호 광주시와 무등산권 타 지자체 등 협력 자원보존과 활용 위한 연합기구 설립해 화순군민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행사 할 것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칠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예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